

선택과목이 당락을 가른다



지 상 범 의

입시 토크

2028학년도 대입 개편과 고교학점제의 전면 정착은 한국 고교 교육과 대입 전형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과거의 대입 전략이 단순히 높은 내신과 수능 등급을 받는 것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어떤 과목을 이수하여 학문적 역량을 다졌는가를 입증하는 과정 중심 변화가 진행 중이다. 중심에는 대학 입학처가 직접 제시하는 전공 연계 권장과목이 자리 잡고 있다.

대학별 전공선택 가이드북과 대교협 발표 자료는 대학 입학 후 전공 학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고교 단계에서 갖춰야 할 학문적 기초 가이드라인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교과 이수 현황이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 평가 요소로만 활용되었다. 그러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을 필두로 정시모집에서도 학생부 교과 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이 확대됨에 따라 권장 과목 이수 여부는 수시와 정시를 관통하는 핵심 합불 요소로 자리 잡았다.

수도권 주요 22개 대학 중 계열·모집단위별 이수 권장과목 기준을 밝힌 곳은 17개교다. 5개교는 영역 중심의 자율 탐구를 안내한다. 각 대학이 사용하는 용어와 평가 구조는 차이를 보인다. 경희대, 국민대, 서울시립대 등은 핵심과목과 권장과

목을 이원화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은 권장과목 단일 체계를 운용 중이다. 건국대는 이수추천 과목, 인하대는 우선권장 교과영역, 숙명여대는 선택교과맵 형태로 안내한다. 고려대, 경희대, 중앙대, 인하대 등은 주로 이공계열 중심으로 과목을 권장한 반면, 서울대, 동국대, 국민대, 숙명여대 등은 인문·사회계열까지 폭넓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가이드북 분석 결과 이공·의약계열은 특정 수학과 과학 과목 이수를 강력히 요구하는 반면, 인문·사회계열은 영역 전반의 균형 잡힌 학업 성취를 기대한다. 의약계열 13개 대학 자료에서는 미적분2, 화학, 생명과학이 최다 언급되었으며,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등 심화 진로선택 과목을 명시한 대학도 7곳에 이른다. 컴퓨터·AI 계열은 수학(미적분2, 기하) 비중이 높고, 전자·반도체 계열은 물리학, 기계 계열은 물리학과 기하, 화학·신소재 계열은 화학과 물리학의 동시 이수를 강조한다. 수험생은 2022 개정 교육과정하의 수학 교과 편제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 공통수학 1·2를 바탕으로 일반선택(대수, 미적분1, 확률과통계)과 진로선택(미적분2, 기하)이 편성되므로 대학이 권장하는 미적분2나 기하는 고교 2, 3학년 과정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편제표를 조기에 확인해야 한다. 인문·사회계열은 경영·경제의 확률과 통계, 미적분1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자율 이수를 권장한다.

대학 입학처 관계자들은 권장과목 미이수가 곧바로 지원 불가능이나 정량적 자동 감점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설명한다. 대학은 평가 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를 함께 검토하여, 성적 관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피했는지 여건상 들을 수 없었는지 구별해 정성적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권장과목을 충실히 이수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심화된 탐구 역량을 보여준 수험생이 합격선에 가까워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나아가 정시모집에서도 서울대, 고려대처럼 정성평가로 반영하거나 경희대처럼 가·감점을 부여하는 정량적 방식을 취하는 대학이 늘어남에 따라 권장과목은 필수 전략 요소가 되었다.

고교학점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목표 계열에 맞춘 맞춤형 로드맵을 수립하여 주요 과목 이수 계획을 미리 설계해야 한다. 둘째, 재학 중인 학교에 특정 과목이 없다면 공동교육과정이나 주문형 강좌 등을 활용해 능동적 학업 열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셋째, 단순 수강에 그치지 않고 탐구 보고서, 발표 등 수업 내 활동을 전공과 연계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넷째, 정시만을 노리고 쉬운 과목만 선택하기보다 수능 대비와 대학별 권장과목 이수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적성과 진로에 맞추어 진정성 있게 과목을 선택하고 탐구하는 수험생이 최종 승자가 될 것이다.

/JSB진로진학연구소장

편의점 진열대에서 시작한 지역 관광



기지 수첩

김 서 현
(유통&라이프부)

편의점에서 김천의 김밥을 사고, 춘천의 닭갈비와 안동의 찜닭을 맛보는 시대다. 지역 축제와 맛집에서 출발한 음식이 전국 매장에 등장하면서 유통업체의 '로코노미(Local+economy)'가 새로운 소비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단순한 신제품 경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지역을 알릴 기회가 그만큼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관광의 출발점은 반드시 유명 관광지나 대규모 홍보 캠페인일 필요가 없다. 우연히 맛본 음식이 궁금증을 낳고, 그 음식이 탄생한 지역을 방문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춘 유통기업은 지역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홍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역 경제에 돌아갈 실질적인 이익도 기대된다. 전국 소비자와 만날 기회가 늘어나면 지역 사업자의 매출 기반이 확대되고 지역 브랜드의 인지도도 높아질 수 있다. 상품에 대한 관심이 현지 시장이나 상점 방문으로 이어진다면 관광과 소비의 선순환도 가능하다.

다만 지역 이름을 상품에 붙이는 것만으로 상생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상품 판매가 지역 생산자와 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살펴야 한다. 축제와 관광지, 현지 판매처를 함께 소개하는 등 지역 방문으로 이어질 연결고리도 필요하다.

로코노미의 가치는 지역의 이야기를 전국에 전하는 데 있다. 유통기업의 판로와 홍보 역량이 지역 관광·상권과 맞물린다면 작은 상품 하나가 지역 방문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유통업체의 상생이 매장 안의 판매 실적을 넘어 지역 현장에서도 확인되기를 기대한다.

/seoh@metros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6일 (음 9월 6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취

48년생 한군데를 막아도 다른 곳이 터집니다. **60년생** 사고 위험이 있으니 외출은 삼가하세요. **72년생** 오랜 친구에게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84년생** 예기치 않은 일로 어려움이 생깁니다.



소

49년생 몸치면 좋고 흠어지면 어렵습니다. **61년생** 리더십을 가지고 주위를 잘 이끌게 됩니다. **73년생** 친절하게 행동하면 좋은 결과가 따릅니다. **85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추진하면 이루어집니다.



호랑이

50년생 반동의 기마가 안 보이니 답답합니다. **62년생**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74년생** 정신적 여유를 위해 돈 쓸 때도 필요합니다. **86년생** 발전을 위한 노력 이 더 필요합니다.



토끼

51년생 고의든 타의든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63년생** 참지 않는 자에게 좋은 결과는 없습니다. **75년생** 말만 무성하고 결과가 안나옵니다. **87년생** 본인 감정보다는 배려하는 게 좋습니다.



염

52년생 도와주어야 할 곳이 많고 실속은 없습니다. **64년생**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속상한 하루입니다. **76년생**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88년생** 일이 잘 안되어도 실망은 금물입니다.



뱀

53년생 이득보다는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면 길합니다. **65년생** 신중하게 판단해야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77년생** 남에게 도움을 주는 하루입니다. **89년생** 받기보다는 베푸는 게 좋습니다.



말

54년생 동업자를 만나 일이 순조롭습니다. **66년생** 부동산이나 금전문제 주의하세요. **78년생**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90년생** 순간적인 기지로 어려움을 쉽게 벗어납니다.



호랑이

55년생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는 게 좋습니다. **67년생** 천 번이든 만 번이든 참는 게 이득입니다. **79년생**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91년생** 소신 있게 추진하면 끝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원숭이

56년생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68년생** 주위가 합심하니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80년생** 뜻하던 것들이 잘 이루어집니다. **92년생** 노력에 대한 과실이 매우丰硕합니다.



닭

57년생 큰 일을 하려면 작은 근심은 버려야 합니다. **69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있지만 버려야 대로 이루어집니다. **81년생** 모든 것이 길하니 운이 좋습니다. **93년생** 운도 환하고 마음도 환합니다.



돼지

58년생 인연운이 있으니 낯선 이를 만나도 즐겁습니다. **70년생** 변화를 모색하기에 좋은 하루입니다. **82년생** 작은 이익을 양보하면 더 큰 기회가 찾아옵니다. **94년생** 자신감 있게 추진하세요.



돼지

59년생 주위의 말보다는 소신을 지키세요. **71년생** 주위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83년생** 자신감이 충분하니 기운도 충분합니다. **95년생** 주위의 시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상회의四季

명절 차례상

명절 차례상은 조상님께 한 해의 시작을 맞으면서, 봄과 여름을 거쳐 가을에 추수하는 결실을 감사하며 조상님들께 올리는 정성의 표현이다. 조상님들에 대한 감사와 가족과 친척 등도 오랜만에 인사를 나누며 정을 나누는 소중한 전통이 되어 왔다. 명절이 부담 아닌 부담으로 다가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괜히 명절이 아니다. 핵가족 시대에서 차례상을 차리는 가정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부모님들이 생존해계신 가정에서는 그래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 명절이다. 전통적인 명절 차례상 차림만큼은 아니더라도 간소화 차림 등으로 각 지방적 특성이나 집안의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명절 상차림은 부담스러워도 즐겁게 받아들여지곤 한다.

차례상은 보통 5월 배치법이라 하여 1월에는 설날에는 떡국을, 추석에는 송편을 식사대용으로 올리며 2월은 육전이나 육적 같은 고기류와 어전이나 어적 같은 생선류를 놓는데, 이를 어동육서(魚東肉西)를 따른다고 하며 생선을 둘 때도 동쪽으로 머리를 향하게 하고 꼬리는 당연히 서쪽을 향하게 하니 두동미서(頭東尾西)를 적용한다. 3월은 지방의 특색에 따라 육탕, 소탕, 어탕 등 탕류를 올리며 4월은 포는 서쪽, 식혜는 동쪽으로 두니 좌포우혜(左脯右醢)라 하며, 가운데에는 나물을 놓는다. 5월은 후식이니 조율이시로서 대추·밤·배·감 순으로 놓고 그 밖에 흥동백서라 하여 붉은 과일(동쪽), 흰 과일은 서쪽으로 과일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필자의 월광사에서는 전통적인 차례상 차림으로 계속 합동 차례를 지내온다. 성균관에서도 간소화 차례상을 권고하고 있다. 전도 최소 서너 가지를 만들기도 하였기에 어동육서라 하더라도 가짓수가 상당하여 상이 가득하다 못해 난감할 적이 적지 않았다. 정형화된 차례상 음식보다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자류나 디저트류를 놓아도 무방하리라 싶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14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18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